

정 소 우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EFL 학습자들의 한국어와 영어 작문에서의  
조응현상과 일관성 비교

- “중심화 이론(Centering Theory)”을 바탕으로 -

200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김 주 희

EFL 학습자들의 한국어와 영어 작문에서의  
조응현상과 일관성 비교

- “중심화 이론(Centering Theory)”을 바탕으로-

정 소 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김 주 희

# 인 준 서

김주희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감사의 글

언제나 조언과 인도를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신 '정소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주제를 정할 때부터 논문이 완성되는 날까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항상 지적해 주시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안해 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가 아니었다면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입학에서 졸업하는 날까지 교육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며 직장을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저를 비롯한 학우들에게 배려와 지원을 하여주신 '신명신' 교수님께도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수업시간에 여러 지도를 통하여 논문에 대한 방향과 작성에 대한 감을 익힐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고정민' 교수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학기동안 어렵고 벽찬 수업과정이었어서 힘들었지만, 마지막 학기동안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험 데이터 작성을 위하여 도와주신 '김나성' 선생님과 기꺼이 실험에 응하여준 백마고등학교 35여명 학생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릴 때부터 제가 하는 모든 선택들을 믿고 지켜봐주신 부모님께도 감사드리며, 항상 믿음에 어긋나지 않는 딸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모든 분들께 저의 작은 결실을 드리며, 앞으로의 삶도 배움으로 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2007년 5월 김주희

# 논문개요

사람들 간의 관계는 결국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발전되거나 또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의도나 주장을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자질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담화나 텍스트에서 일관성은 목적이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필수적인 특성이며, 담화의 초점이나 관심을 조절함으로써 담화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과정에 대한 계산적인 모델을 제시한 이론이 바로 Grosz와 Joshi(1995)의 중심화 이론(centering theory)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학습자들이 실제 작성한 작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각각의 중심의 전이현상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언어의 능숙도와 텍스트의 일관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중심화 이론에 대해 고찰하였고, 실험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경기도의 P고등학교 1학년 한 학급 35명을 실험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실험은 학생들에게 두 개의 주제를 각각 제시하여 영어와 한국어로 자유 작문을 한 후, 본인의 작문을 다시 영한, 한영으로 번역하게끔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영어 능숙도 평가를 위해 이전 학년 영어 성적에 대한 설문 문항을 삽입하였다. 일주일의 자료 수집 후 일부 작성이 누락되어 분석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16건의 자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작문 자료들을 중심화 이론의 중심전이 토대 하에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에서 실현된 중심전이 양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어 작문에서 중심이 지속적으로 실현된 비율이 영어 작문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즉, 언어의 능숙도 여부가 텍스트의 일관

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둘째, 성적에 따른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의 중심전이 비교 분석 결과 해당 언어의 성적이 높을수록 텍스트의 일관성도 높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첫 번째 결론을 보다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 영어 성적이 상위권 그룹과 전체 그룹, 중하위권 그룹과 전체그룹 그리고 영어 상위권과 중하위권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 간의 결과를 다시 비교하였다.

결과는 영어 성적이 상위권인 그룹의 중심전이의 지속 비율이 전체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고, 중하위권 그룹의 중심전이 지속 비율이 전체 그룹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영어 성적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 간의 대조에서는 상위 그룹의 중심전이 지속 비율이 중하위 그룹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실험 결과 그룹을 영어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양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한국어 작문에서의 일관성 역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영어가 능숙한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능숙도에 따라 한국어 작문의 일관성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영어 성적 상위권 그룹 중 한국어 성적도 상위권인 그룹과 중하위권인 그룹으로 나누어 실현된 중심의 전이 양상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영어의 능숙도가 높은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 국어 성적이 낮으면 한국어 작문에서 중심이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비율 역시 낮아져 일관성이 결여된 작문을 구성해 낸다는 결론이 나왔다. 아울러 영어의 능숙도가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어 성적이 높으면 일관성 있는 한국어 작문을 구성해 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들 성적에 따른 중심전이의 분석에서도 언어의 능숙도가 높을수록 더욱더 일관성이 높은 글쓰기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즉, 해당언어의 능숙도가 그 언어로 구사되는 텍스트의 일관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였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언어의 능숙함 여부가 텍스트의 일관성과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가설의 단계에서 텍스트를 일관성 있게 전개하는 능력은 논리적인 사고력과 부합하므로 해당 언어 구사 능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였지만, 이러한 텍스트의 전개능력은 언어 자체를 구현하는 능력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그에 따른 인지적인 노력이 수반되는데 해당 언어의 능숙도가 떨어질 경우, 즉 한 문장 한 문장 구현해 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화자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글을 매끄럽고 일관성 있게 전개하기 위한 노력을 상대적으로 덜 기울이기 때문이다.

셋째, 성적에 따라 번역 과정에서 실현되는 중심 전이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영어의 능숙도가 영어 텍스트 자체의 일관성 구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시 영어가 능숙할 수록 번역된 한국어 텍스트 역시 일관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언어의 능숙도와 텍스트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전에 도출된 결론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언어의 능숙함이 번역된 이후의 텍스트에서의 일관성에도 영향을 주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원인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어의 능숙도가 떨어질 경우 번역본 자체에서 글의 전개와 주제에 대한 생각보다는 문장을 하나씩 직역해 나아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즉, 이전 문장과 다음 문장 간

의 내용적인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고 초기 작성된 영어 문장들을 한국어로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관성 없는 번역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넷째, 성적에 따른 중심 실현의 위치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영어 성적과 국어 성적이 상위인 그룹이 중하위 그룹보다 중심이 목적어보다 주어에서 더 높은 비율로 실현되었다. 즉, 해당 언어가 능숙할수록 구정보/신정보 원칙에 근거하여 더 일관성 있는 텍스트의 양상을 보였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에서 나타나는 영조응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미 검증된 사실대로 영조응의 실현 비율이 학생들의 영어 작문보다 한국어 작문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 작문에서 실현되는 영조응의 비율은 국어 성적 상위 그룹이 중하위 그룹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즉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수록 학생들의 한국어 작문에서 자연스럽게 영조응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일관된 담화나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언어의 사용에 대한 능숙함이 필요하다. 결국 텍스트란 문장들 간의 결합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문장 간의 연결과 관심 상태를 일관성 있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장 구성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의의	2
II. 이론적 배경	4
1. 중심화 이론	4
1.1. 중심화 이론의 기본 개념	5
1.2. 중심전이(center transition)	7
1.3. 중심화 제약조건(Constraints on the Center)	9
2. 중심화 이론과 한국어 영조응사(zero anaphora)의 해석	12
III. 한국인 학습자들의 조용현상에 대한 실제	14
1. 연구문제 및 가설	14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16
3. 자료의 분석방법	17
4. 실험결과 및 논의	19
4.1.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의 중심전이 비교분석	19
4.2. 성적에 따른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의 중심전이 비교분석	24
4.3. 성적에 따라 번역 과정에서 실현되는 중심전이 비교분석	36
4.4. 성적에 따라 실현된 중심의 위치에 대한 비교분석	39
4.5.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에서 실현된 영조응 비교분석	43

IV. 결론 및 제언 .....	49
1. 요약 및 결론 .....	49
2. 연구의 제한점 및 시사점 .....	52
참 고 문 헌 .....	54
ABSTRACT .....	56
부    록    I .....	59
부    록    II .....	64

## 표 목 차

표 1. 네 가지 유형의 담화전개 양상(transition) .....	9
표 2.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 간 중심전이 비교 .....	19
표 3. 영어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중심전이(A) VS. 전체 통계(B)와의 비교 .....	25
표 4. 영어 성적 상위 그룹(A)중 한국어 성적 상위권인 그룹(B) 간 중심전이 비교 .....	26
표 5. 영어 성적 상위 그룹(A)중 한국어 성적 중하위권 그룹(B)간 중심전이 비교 .....	27
표 6. 영어 성적 중하위권 학생들의 중심전이(A) VS. 전체 통계(B)와의 비교 .....	30
표 7. 영어 성적 중하위 그룹(A) 중 한국어 성적 상위 그룹(B)간 중심전이 비교 .....	31
표 8. 영어 성적 중하위 그룹(A) 중 한국어 성적 중하위 그룹(B)간 중심전이 비교 .....	32
표 9. 영어성적 상위 그룹 중심전이(A) VS. 중하위 그룹(B) 중심전이 비교 .....	33
표 10. 영한, 한영의 번역과정에서 실현된 중심전이 비교 .....	37
표 11. 영어 성적 상위 그룹과 중하위 그룹간의 영한 번역시 나타나는 중심전이 비교 .....	38
표 12.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에서 중심 실현 위치에 대한 비교 .....	40
표 13. 영어 성적에 따른 영어 작문의 중심 실현 위치에 대한 비교 .....	41
표 14. 국어 성적에 따른 국어 작문의 중심 실현 위치에 대한 비교 .....	42

표 15. 학생들의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 간 실현된 영조응 비교 .....	44
표 16. 한영, 영한 번역과정에서 실현된 영조응 비교 .....	46
표 17. 국어 성적 상위 그룹(A)과 중하위 그룹(B)간의 실현된 영조응 비교 .....	47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텍스트가 텍스트성을 가지려면 일관성을 지녀야한다. 이렇듯 텍스트에서 일관성은 목적이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필수적인 특성이며, 일반적으로 텍스트의 전체적인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대명사나 생략 또는 연결어 같은 결속 기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듯 대명사를 통해 담화의 초점이나 관심을 조절함으로써 담화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과정에 대한 계산적인 모델을 제시한 이론이 바로 중심화 이론이다.

중심화 이론은 Grosz와 Joshi(1995)에 의해 처음 제안된 이후에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고, 주로 서양어의 문맥에서 조응의 해결을 위해서 제안되어 왔다. 또한 중심화 이론에 따르면 한 담화나 텍스트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담화분절을 해석하기 위해 청자나 독자가 감수해야 하는 추론의 양으로 측정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청자나 독자들은 중심이 같은 개체로 유지되는 발화의 흐름을 중심이 자주 교체되는 발화의 흐름보다 더 일관성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이렇듯 중심화 이론에서는 중심의 지속과 전이에 대한 일종의 규칙을 설정하여 담화나 텍스트 상 실현되는 양상에 따라 일관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일관성 있는 담화를 위해서는 중심의 지속이 유보보다 선호되고 유보가 전이보다 선호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심의 전이 내에서는 순전이가 과격전이보다 선호된다. 이 규칙은 중심을 계속

지속하고 가능하다면 유보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중심으로의 부드러운 이동을 하는 편이 더욱 일관성 있는 담화가 되고, 잦은 전이는 일관성 없는 담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학습자들이 실제 작성한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각각의 중심의 전이현상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언어의 능숙도와 텍스트의 일관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언어의 능숙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영어와 국어 성적으로 삼았으며, 각각의 성적에 있어서 상위권인 그룹과 중하위권인 그룹 간 비교를 통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른 결론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중심화 이론에 대해 고찰을 한 후 이론을 토대로 한국 학습자들의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에 실제 나타나는 조응 현상과 중심전이 현상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다.

## 2. 연구의 의의

이러한 연구 목적을 세운 취지는 7차 교육과정 이후 학생들의 영어 글 쓰기 능력에 대한 자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영어 교사로서 중요한 자질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이 영어로 일관성 있는 텍스트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통사적, 어휘적인 능력인지 아니면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아가는 능력인지 의문이 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에 따른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의 분석을 통하여 언어의 능숙도와 텍스트의 일관성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의의는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영작문 지도 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고안해 내기 위한 하나의 시사점을 마련하는데 있다.

## 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담화의 결속과 일관성에 대한 분석 연구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중심화 이론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중심화 이론

중심화란 담화에서 청자와 화자들이 담화의 관심이나 의도를 조절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양상에 대하여 분석한 이론이다. 먼저 Grosz와 Joshi(1995)의 연구에서 인용한 예로써 다음 두 담화분절(discourse segment)을 살펴보겠다.

(1) John went to his favorite music store to buy a piano.

He had frequented the store for many years.

He was excited that he could finally buy a piano.

He arrived just as the store was closing for the day.

(2) John went to his favorite music store to buy a piano.

It was a store John had frequented for many years.

He was excited that he could finally buy a piano.

It was closing just as John arrived.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담화분절(1)이 담화분절(2)보다 분명히 더 ‘일관

성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목적을 가진 담화는 항상 무엇에 관한 담화가 되는데, 이때의 그 무엇이 (1)에서는 John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2)에서는 여러 번 변화하기 때문이다. 즉 담화분절(1)은 명확한 하나의 관심의 초점 혹은 중심을 갖지만 (2)는 그렇지 않다. 담화분절 (1)과 담화분절(2)는 명백히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며, 이 차이는 어느 쪽이 직관적으로 더 일관성이 있느냐 하는 점에서 차이를 가져온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이 담화에 참여하는 청자나 독자에게 요구되는 추론의 부담에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즉, 한 담화를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추론이 요구된다면 그 담화는 덜 일관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중심화 이론은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틀로서 제시된다.

### 1.1. 중심화 이론의 기본 개념

Grosz의 중심화 이론은 주의 상태의 구성요소를 모형화 하기 위한 것으로 담화에서 주의를 받는 요소를 중심라고 하고 그 중심의 유지나 변화가 담화의 분절을 이루거나 구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양재형, 1997).

중심화 이론에서 담화 분절 내의 각 발화는 두 개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전향 중심(forward-looking center)라고 불리는 일련의 담화 개체들의 집합인  $C_f(U_n)$ 와, 이 집합의 한 요소인 후향 중심(backward-looking center,  $C_b(U_{n+1})$ )이 그것이다. 후향 중심은 한 발화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논의하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담화 개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초점'이나 '주제'와 관련된 개념이다.

하나의 일관된 목적을 가진 담화분절에서 우선 첫 번째 발화에 그 발화에 실현된 명사구로 이루어진 전향 중심의 집합이 존재한다. 이 집합의 요소들은 언어적 또는 인지적인 요인에 따라 후향 중심의 후보로써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데 이전 발화와 현 발화를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개체인 후향 중심은 해당되는 발화에서 논의의 중심이 되며, 현 발화와 이전 발화의 결속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때 통상적으로 후향 중심은 이전 발화에서 언급된 명사를 대명사로 받아 실현되는 경우가 많으며 화자의 초점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향 중심은 그 발화에서 상대적인 현저성(salience)에 의해 서열화 될 수 있다. 즉, 전향 중심에서 보다 두드러진 위치에 존재하는 개체가 후향 중심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인 현저성의 위계를 결정하는 것을 Grosz는 발화의 통사적인 기능으로 보았으며 구체적으로 주어>목적어>기타 순으로 제안하였다. 이렇게 하여 전향 중심들 중 최상 위가 결정되는데 이렇게 후향 중심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전향 중심을 구분하여 선호 중심( $C_p(U_n)$ )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만약 선호 중심이 이전 발화에서 실현되었다면 그것은 현 발화의 후향 중심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것이다.

요약컨대, 양재형(1997)이 기술한 정의에 따르면 중심화 이론은 Grosz(1985)와 Sidner(1986)가 제안한 대로 관심 상태를 형식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이론적인 틀이다. 관심 상태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담화에서의 ‘현저성’의 개념이고, 이를 중심화 이론 내에서 표현해 낸 것이 전향 중심들의 선호 순위인 것이다.

## 1.2. 중심전이(center transition)

앞에서 담화분절 (1)과 (2)를 비교한 것처럼 한 담화분절 내에서의 발화의 흐름이 다른 담화분절보다 더욱 일관성 있다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중심화 이론에 따르면 한 담화나 텍스트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담화분절을 해석하기 위해 청자나 독자가 감수해야 하는 추론의 양으로 측정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청자나 독자들은 중심이 같은 개체로 유지되는 발화의 흐름을 중심이 자주 교체되는 발화의 흐름보다 더 일관성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양재형, 1997).

Grosz와 Joshi(1995)의 연구에서는 중심 전이의 관점에서 두 연속된 발화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분류하고 있다.

1. **CENTER CONTINUATION** :  $C_b(U_{n+1}) = C_b(U_n)$ , and this entity is the most highly ranked element of  $C_f(U_{n+1})$ . In this case,  $C_b(U_{n+1})$  is the most likely candidate for  $C_b(U_{n+2})$ ; it continues to be  $C_b$  in  $U_{n+1}$ , and continues to be likely to fill that role in  $U_{n+2}$ .

2. **CENTER RETAINING** :  $C_b(U_{n+1}) = C_b(U_n)$ , but this entity is not the most highly ranked element of  $C_f(U_{n+1})$ . In this case,  $C_b(U_{n+1})$  is not the most likely candidate for  $C_b(U_{n+2})$ ; although it is retained as  $C_b$  in  $U_{n+1}$ , it is not likely to fill that role in  $U_{n+2}$ .

3. **CENTER SHIFTING** :  $C_b(U_{n+1}) \neq C_b(U_n)$ .

첫 번째, 중심 지속(continue)에서는 새 발화의 후향 중심은 이전 발화

와 같고, 이 개체가 역시 다음 발화를 위한 선호된 중심이 된다. 이전 발화에서의 중심이던 후향 중심은 현재 발화에서도 계속 중심으로 유지되며, 다음 발화에서도 중심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화자는 특정한 개체에 대한 말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개체에 대해 계속 말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경우이다. 두 번째, 중심 유보(retain)에서는 이전 발화의 중심은 현재 발화에서도 중심으로 유지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다음 발화에서 중심이 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개체는 아니다. 이 경우는 화자가 다음 발화에서 새로운 개체로의 중심 이동을 의도하고 있어서, 현재의 중심을 전향 중심상의 하위 위치에 실현시킴으로써 그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세 번째, 중심 전이(shift)는 중심이 이동되어 이전 발화와 현 발화의 중심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이며, Brennan(1994)과 Walker(1994)는 후향 중심과 선호 중심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순전이(smooth-shift)와 과격전이(rough-shift)로 더 세분화하고 있다.

3.a. SMOOTH-SHIFTING :  $C_b(U_{n+1}) = C_p(U_{n+1})$ .

현발화의 중심이 중심선호도에 있는 경우.

3.b. ROUGH-SHIFTING :  $C_b(U_{n+1}) \neq C_p(U_{n+1})$ .

현발화의 중심이 중심선호도에 있지 않은 경우.

또한 위와 같은 네 가지 유형의 담화 전개 양상을 Walker(1994)는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표 1. 네 가지 유형의 담화전개 양상(transition)

	$C_b(U_{n+1}) = C_b(U_n)$	$C_b(U_{n+1}) \neq C_b(U_n)$
$C_b(U_{n+1}) = C_p(U_{n+1})$	CONTINUE	SMOOTH-SHIFT
$C_b(U_{n+1}) \neq C_p(U_{n+1})$	RETAIN	ROUGH-SHIFT

### 1.3. 중심화 제약조건(Constraints on the Center)

이러한 전향 중심과 후향 중심 등의 중심구조와 함께 중심화 이론은 몇 가지의 제약과 규칙을 주장하고 있다. Walker에 따르면, ‘제약’은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반면에 ‘규칙’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한다.

Grosz의 중심화 이론에 대한 연구에서는 중심 실현에 대한 제약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Constraints :

1. A Unique  $C_b$  : Each utterance  $U_n$  has exactly one backward-looking center  $C_b$ .
2. Ranking of  $C_f$  : The elements of the forward-looking centers are partially ordered according to a number of factors.
3. The choice of backward-looking center for an utterance  $U_{n+1}$  is from the set of forward-looking centers of the previous utterance  $U_n$ .

첫 번째 제약은 한 담화분절에 속하는 각 발화에 대해 정확히 하나의 후향 중심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제약은 발화의 후향 중심은 현 발화 안에서 실현되는 요소들 중에서 직전 발화의 전향 중심들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다. 세 번째 제약은 하나의 발화에 대한 후향 중심

의 선택은 이전 발화의 전향 중심들 중 하나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럼 이제 중심의 전이와 실현에 대한 기본적인 두 가지 규칙들을 살펴 보겠다.

**Rule 1** : If any element of  $C_f(U_n)$  is realized by pronoun in  $U_{n+1}$ , then the  $C_b(U_{n+1})$  must be realized by a pronoun also.

첫 번째 규칙은 한 담화분절에 속하는 각 발화에 대해서 만약 전향 중심의 어떤 요소가 대명사로 실현되었다면, 후향 중심 역시 대명사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만일 한 발화에 둘 이상의 대명사가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는 후향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단 하나의 대명사만 있다면 그 대명사가 바로 후향 중심이어야 한다는 사실도 도출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발화의 후향 중심이 대명사로 실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요소도 대명사로 실현될 수 없다. 이 규칙은 대명사를 이용하여 후향 중심을 실현함으로써 화자나 필자가 같은 주제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자 한다는 의도를 청자나 독자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영어에서의 대명사의 실현은 한국어에서는 영조응사로의 실현이 선호된다.

**Rule 2** : Sequences of continuation are preferred over sequences of retaining; and sequences of retaining are to be preferred over sequences of shifting.

두 번째 규칙에서는 선호되어지는 중심의 전이 유형을 순서 지었는데, 일관성 있는 담화를 위해서는 중심의 지속이 유보보다 선호되고 유보가

전이보다 선호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심의 전이 내에서는 순전이가 과격전이보다 선호된다. 이 규칙은 중심을 계속 지속하고 가능하다면 유보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중심으로의 부드러운 이동을 하는 편이 더욱 일관성 있는 담화가 되고, 잦은 전이는 일관성 없는 담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럼 Grosz와 Joshi(1995)의 연구의 예를 인용하여 영어에서의 중심 전이의 유형들을 살펴보겠다.

- (3) a. John has been having a lot of trouble arranging his vacation.  
 b. He cannot find anyone to take over his responsibilities. (he = John)  
 $C_b = \text{John} ; C_f = \{\text{John}\}$   
 c. He called up Mike yesterday to work out a plan. (he = John)  
 $C_b = \text{John} ; C_f = \{\text{John, Mike}\}$  (CONTINUE)  
 d. Mike has annoyed him a lot recently.  
 $C_b = \text{John} ; C_f = \{\text{Mike, John}\}$  (RETAIN)  
 e. He called John at 5 AM on Friday last week. (he = Mike)  
 $C_b = \text{Mike} ; C_f = \{\text{Mike, John}\}$  (SMOOTH-SHIFT)

위의 예를 살펴보면, (3b)에서는 대명사가 he(=John) 하나밖에 없으므로 Rule 1에 의해서 John이 현 발화 (3b)의 후향 중심으로 확립되고 있다. 또한 다음 발화 (3c)에서 이전 발화의 중심인 John이 동일하게 후향 중심으로 유지될 뿐 아니라 현 발화에서 중심 선호도 위치에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 발화 (3d)에서 역시 중심이 동일한 개체로 계속될 것을 예고하고 있어 중심 전이 유형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다음 (3d)에서도 하나의 대명사 him(=John)이 사용되고 있으

므로 여전히 John이 후향 중심으로 유지되지만 이것이 발화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위치인 주어 자리에 실현되어 있지는 않다. 즉, 후향 중심과 선호 중심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중심이 단지 유보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3e)에서는 유일한 대명사인 he가 Mike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향 중심과 후향 중심이 동일하지 않아 중심이 순 전이되어 새로운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중심화 이론과 한국어 영조응사(zero anaphora)의 해석

장석진(1994)에 따르면, 영어에서 대명사로 실현되는 현상이 한국어와 같은 동양권 언어에서는 영조응으로 우선 실현된다. 사실 이들은 모두 조응이라는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특정 언어와 상황에 따라서 대명사/대동사 등으로 실현될 수도 있고 영조응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 장석진은 영어의 대명사 지시 해결 문제는 한국어에서는 생략된 요소의 복원 문제가 된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한국어의 영조응을 영어의 대명사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중심화 알고리즘은 한국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하나의 문장에서 영조응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요소가 표층문장에서는 빠져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무엇이 생략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용언의 하위범주화 정보를 살펴보아 문장에서 실현되지 않은 필수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필수 요소가 빠져있다면 그 위치에 영조응을 가정할 수 있고, 이를 영어의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중심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그 영조응의 지시체를 판별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최인훈의 ‘회색인’에서 발췌한 한국어 담화의 예이다(정국외, 1998).

(4) a. 독고준은 쓰기를 멈췄다.

$C_b = \{ ? \}, C_f = \{ \text{독고준} \}$

b.  $\emptyset$  한 개 남은 감자를 집에서 입에 넣었다.

$C_b = \text{독고준}, C_f = \{ \text{독고준}, \text{감자}, \text{입} \}$

c.  $\emptyset$  손을 뺀어서 벽장문을 연다.

$C_b = \text{독고준}, C_f = \{ \text{독고준}, \text{손}, \text{벽장문} \}$

위의 예를 살펴보면 최초 발화 (4a)의 후향 중심은 존재하지 않고, 전향 중심은 ‘독고준’이다. (4a)라는 발화 안에서 유일한 요소인 ‘독고준’이 가장 상위의 서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4b)에서의 후향 중심은 ‘독고준’이며 따라서 생략된 영조응 주어도 ‘독고준’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4c)에서도 중심은 ‘독고준’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전 발화의 전향 중심들 중 ‘독고준’이 전향 중심의 서열상 가장 상위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향 중심들 중 후향 중심이 될 가능성은 주어 > 목적어 > 기타 순이 되는데 영조응으로 생략된 ‘독고준’이 주어에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4c)에서의 후향 중심 역시 ‘독고준’이 되며 생략된 영조응도 역시 ‘독고준’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 Ⅲ. 한국인 학습자들의 조용현상에 대한 실제

본 장에서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실제 작성한 영어 및 한국어 작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각각의 중심의 전이 및 조용현상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언어의 능숙도와 텍스트의 일관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중심화 이론을 토대로 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분석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언어의 능숙도 여부가 과연 담화나 텍스트의 일관성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장석진에 따르면 중심화 규칙은 정문이나 비문이나 하는 문장 자체의 정형성이 아니라 자연스러움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선호의 정도를 규명하고자 하는 규칙이다. 따라서 통사적, 문법적인 접근을 통하여 텍스트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므로 언어의 능숙도 여부가 텍스트를 일관성 있게 전개하는 능력과는 무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 학생들의 한국어 작문과 영어 작문간의 중심 전이의 유형은 동일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즉, 언어의 능숙도는 담화나 텍스트의 일관성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중심화 이론의 중심 전이에 대한 유형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들의 작문에 나타나는 중심의 유형 중 지속의 비율이 높을수록 일관성 있는 텍스트라고 결론짓기로 한다. 즉, 학생들의 한국어 작문과 영어 작문 중 어떤 경우에서 지속 또는 전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위의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한다.

또한 언어의 능숙도 여부를 학생들의 영어 및 국어 성적으로 구분하여 언어의 능숙도의 차이가 작문에서 나타나는 일관성과 어떤 관련을 보이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언어의 능숙도와 텍스트 간의 상관관계를 여러 유형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결과분석을 통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에 대한 상위 그룹과 중하위 그룹간의 비교 뿐 아니라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그리고 중심이 실현되는 위치에 대한 분석에서도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 간 나타난 결과를 대조 분석해 볼 것이다.

두 번째는 연구 문제는 한국어 영조응의 실현에 대한 문제이다. 중심화 이론에서는 ‘담화의 결속에 기여하는 대명사로만 그 대상을 한정하였고, 대상 언어도 영어가 그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어 담화나 텍스트 상에서 쉽게 등장하는 생략형은 논외가 되었었다. 하지만 장석진(1997)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의 영조응을 영어의 대명사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중심화 알고리즘을 한국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같은 동양권 언어의 특성상 대명사 보다는 생략형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어 텍스트에서보다 한국어 텍스트에서 영조응이 더 많이 사용된다는 이미 검증된 사실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작문에서

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또한 언어의 능숙도가 영조응 분포의 비율에도 차이를 가져오는지, 즉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날수록 학생들의 한국어 작문에서 자연스럽게 영조응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것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실험 집단은 경기도의 P고등학교 1학년 한 학급 3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실험 대상을 고등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텍스트의 일관성에 대한 분석을 위한 하나의 텍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단문 형태로 작문하는 연습이 어느 정도 밀바탕 되어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 작문의 경험이 많은 고등학생으로 피 실험집단을 선정하였다. 또한 경기도에 위치한 P고등학교는 학업 성취도가 중상위권으로 평가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등학생의 영어 능력을 어느 정도 대변해 줄 수 있는 집단이라 판단하였다.

본 실험은 학생들의 작문 현상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조응현상 및 중심 전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통제 작문 형식이 아닌 자유 작문 형식으로 문항을 작성하였다. 먼저 영어 작문에 대한 주제와 한국어 작문에 대한 주제를 각각 하나씩 채택하였다. 주제 선정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글을 쓰는데 있어서 어휘적인 제약을 다소 덜 받을 수 있도록 친근한 소재로 하였다. 우선 “가장 소중한 친구는 누구이며, 최고의 친구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을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로 작문을 하도록 하였다. 영어로 텍스트가 완성되면,

다시 본인이 작성한 영어 작문을 한국어로 재 번역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에 대한 주제로 한국어 글쓰기를 하도록 한 후, 다시 또 영어로 재 번역하도록 하였다. 영어, 한국어로의 번역, 한국어, 영어로의 번역의 순으로 일련의 번호로 제시하여 영어 텍스트와 한국어 텍스트 비교에 있어서 번역된 형태가 아닌 순수하게 초기에 각각 영어와 한국어의 해당 언어로 쓰인 작문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영어 능숙도 평가를 위하여 전 학년의 영어 성적과 영어 작문에 대한 자가 진단에 대한 설문 문항을 삽입하였다.

학생들의 작문 자료 수집을 위한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하였으며, 총 35명의 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형식으로 작문을 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최대한 성의껏 자료 작성에 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일주일의 자료 수집 후 초기 분석한 결과 미완성된 자료나 한 문장씩만을 작성하여 조응관계 파악을 위한 유의미한 분석이 불가능한 자료가 많았다. 따라서 분석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16건의 자료를 제외하고 19명의 학생이 작성한 작문 데이터만을 실험 결과의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 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실험의 자료 분석 방법은 중심화 이론의 중심 전이 양상을 양적인 통계방법으로 분석한 후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질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서 자료를 분석 시에 중심이 전이되는 양상, 그리고 중심이 실현되는 형태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중심 전이에 대해서는 이전 문장과 현재 문장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유형을 지속, 유보, 순전이 그리고 과격전이 네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비율을 전체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실험 결과는 앞서도 언급했던 중심화 규칙 2 즉, 일관성 있는 담화를 위해서는 지속이 유보보다 선호되고 유보가 전이보다 선호된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작문에 나타나는 중심의 유형 중 지속의 비율이 높을수록 일관성 있는 텍스트라고 결론짓기로 한다.

연구의 결과 분석 시에는 학생들의 작문에 대한 통사적 문법적인 오류에 대한 판단을 배제하여 문장에서 출현되고 있는 명사구들만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변화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살펴보았다. 학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고 있는 오류 중 하나는 한국어 작문 시 나타나는 “~하기 때문이다”라는 원인에 대한 문장을 영어 번역 시 하나의 because절만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영한, 한영의 번역시에 because 종속절과 주절을 별개의 문장으로 분리하여 쓴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의 문장으로 간주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각각의 중심이 실현되는 발화단위를 통사적으로 나누기 애매한 경우에 있어서 일종의 규칙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발화단위의 분류란 중심이 이동되거나 계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중심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발화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야 하는지를 의미한다. 학생들의 작문은 구두상의 담화가 아니므로 텍스트 내에서 하나의 문장들을 말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 분석 시에는 모든 문장을 마침표를 기준으로 나누지는 않았으며, and나 but과 같은 등위접속사로 두 문장이 연결되어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 경우에는 등위 절을 각각의 발화단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단, 종속절과 주절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발화로 보고 중심을 주절의 명사구에서 찾아 분석하였다.

#### 4. 실험결과 및 논의

본 실험결과 및 분석은 먼저 학생들의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중심의 전이유형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설정된 가설대로 한국어 작문과 영어 작문 간에 중심전이의 유형이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전체분석에 대한 결과를 뒷받침 해주기위해서 즉, 영어의 능숙도 여부가 텍스트의 일관성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실험 결과를 피 실험집단의 영어 또는 한국어 성적을 기준으로 상·중하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전체와 비교 분석하였다.

##### 4.1.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의 중심전이 비교분석

먼저 언어의 능숙도 여부가 담화나 텍스트의 일관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검증해 보기 위하여 학생들이 영어로 작문한 경우와 한국어로 작문한 경우 중심전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학생들의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에서 중심이 전이된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2.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 간 중심전이 비교

	Continue		Retain		Smooth-Shift		Rough-Shift		TOTAL	
	N	%	N	%	N	%	N	%	N	%
<i>English</i>										
Overt NP	25	38%	1	2%	37	56%	0	0%	63	95%
Zero NP	1	2%	0	0%	2	3%	0	0%	3	5%
<b>TOTAL</b>	<b>26</b>	<b>39%</b>	<b>1</b>	<b>2%</b>	<b>39</b>	<b>59%</b>	<b>0</b>	<b>0%</b>	<b>66</b>	<b>100%</b>
<i>Korean</i>										
Overt NP	15	29%	1	2%	16	31%	0	0%	32	63%
Zero NP	11	22%	0	0%	8	16%	0	0%	19	37%
<b>TOTAL</b>	<b>26</b>	<b>51%</b>	<b>1</b>	<b>2%</b>	<b>24</b>	<b>47%</b>	<b>0</b>	<b>0%</b>	<b>51</b>	<b>100%</b>

위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에서 중심이 실현된 빈도수 66건과 한국어에서 중심이 실현된 빈도수 51건을 각각 100%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어 작문의 경우 중심이 지속되고 있는 비율이 영어 작문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한국어 작문의 경우에는 총 26건이 중심 지속으로 실현되어 51%의 비율을 보였으나, 영어 작문의 경우에는 빈도수는 동일하나 전체 비율에서 39%만을 차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한국어 작문에 비해서 지속의 비율이 12% 낮다. 또한 순전이의 비율도 영어 작문에서는 59%, 한국어 작문에서는 47%로 영어 작문에서 12%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담화 전개양상에 따른 중심전이 현상을 규정한 중심화 규칙에 따르면, 텍스트의 전개 시 중심을 계속 지속하고 가능하다면 유보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중심으로의 부드러운 전이를 하는 편이 더욱 일관성 있는 텍스트가 되며, 잦은 전이는 일관성 없는 텍스트를 초래한다고 한다. 또한 전이 내에서도 순전이가 과격전이보다 선호되며, 순전이 같은 경우는 너무 길게 계속되는 중심으로 인한 텍스트의 단조로움을 전환시키는 기재로 사용되며 간헐적으로 중심이 전환되는 것은 텍스트의 역동성을 가미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순전이의 사용까지는 비교적 담화의 일관성에 방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본 연구 자료에서는 학생들의 작문자체가 대부분 10문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굉장히 짧은 작문들이었기 때문에 순전이가 전체 100%의 비율에서 아주 낮은 비율로 사용되어야만 비교적 글의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중심 전이에 대한 양상은 한국어 작문이나 영어 작문이 비교적 짧은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순전이의

비율이 너무 높게 나타났다. 즉, 학생들이 글을 전개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영어와 한국어 모두 일관성을 고려한 쓰기 능력에는 미흡한 결과를 보였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영어와 한국어 두 언어 간에 상대적인 중심 전개 양상에 있어서 지속의 비율이 보다 높은 결과를 보인 것은 한국어 작문임이 자명하다.

이는 앞에서 설정한 가설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통사적·문법적인 접근을 통하여 텍스트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므로 언어의 능숙도 여부가 텍스트를 일관성 있게 전개하는 능력과는 무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의 한국어 작문과 영어 작문간의 중심 전이의 유형이 동일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었다. 하지만 설정된 가설과는 반대로 사실상 한국어 작문에서 중심 지속의 실현이 영어 작문보다 12% 높게 나타났다. 즉, 언어의 능숙도 여부가 텍스트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

그럼, 동일한 학생의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을 대조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글의 전개상 잦은 순전이로 중심의 일관성이 없는 영어 작문에 대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5) a. My best friend is PSH.

b. We are always happy when we met.

$C_b = we ; C_f = \{we\}$  (SMOOTH-SHIFT)

c. A best friend is like a family.

$C_b = a \text{ best friend} ; C_f = \{\text{best friend, family}\}$  (SMOOTH-SHIFT)

d. When I felt happy, she felt happy together,

$C_b = she ; C_f = \{I, she\}$  (SMOOTH-SHIFT)

e. and (when) I felt sad, she felt sad together.

$C_b = \text{she} ; C_f = \{\text{I, she}\}$  (CONTINUE)

f. We are helpful for each other.

$C_b = \text{we} ; C_f = \{\text{we}\}$  (SMOOTH-SHIFT)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5)에서 전개되고 있는 작문은 독자로 하여금 ‘일관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하나의 짧은 작문 내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대상이 빈번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단지 7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글에서 중심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빈도는 한건에 불과하며, 4번의 순전이가 일어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첫 문장인 (5a)에서 자신의 친구에 대한 이니셜을 거론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우리는 (5a)이후인 (5b)에서 PSH를 지칭하는 대명사를 시작으로 하는 PSH에 대한 부연설명이 따라올 것을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we’로 시작하는 문장이 뒤따르면서 이전 문장에서 집중된 관심이 약간은 다른 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독자는 인지적으로 다시 ‘we’에 화제를 집중시키며 그 다음 문장에서 ‘we’가 중심이 될 것을 예상한다. 그러나 (5c)에서도 역시나 전혀 다른 새로운 명사를 등장시킴으로써 다시 중심의 순전이가 일어난다.

물론 순전이 자체가 전체적인 텍스트 상에서 일관성에 방해만 되는 것은 아니다. 중심의 지속으로만 글이 전개된다면 다소 지루한 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간헐적으로 화제를 바꾸거나 초점의 이동을 통해 텍스트 내에서 역동성을 가미시킬 수도 있다. 단, 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초점 자체가 문장이 바뀔 때마다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글이 다소 산만한 경향이 있다.

또한, (5d)에서 등장한 'she'는 (5a)의 PSH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명사의 조응에 있어서도 독자로 하여금 추론의 부담을 가져오게 한다. 독자들은 거리상 가장 최근에 언급된 요소들 중에서 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을 찾기 마련이다. 보통 이전 문장이나 앞으로 나올 문장 안에서 실현된 명사들을 대명사로 받는 것이 문맥의 흐름과 벗어나지 않는 것이지만, (5d)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리상 먼 문장에서 실현된 대상을 중심이 계속 변화된 이후에 다시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관성의 흐름이 방해될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영어 작문과 비교하여 동일한 학생의 한국어 작문에서는 중심의 전이 유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다음 예에서 살펴보겠다.

(6) a.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괴물'이다.

b. 그것은 매우 재미있다.

$C_b = \text{그것} ; C_f = \{\text{그것}\} \text{ (CONTINUE)}$

c. 그리고 ∅ 신문에 나온 기사에서도 할리우드에서 평점이 매우 높은 영화중에 하나라고 했다.

$C_b = \emptyset(\text{괴물}) ; C_f = \{\emptyset(\text{괴물}), \text{신문}, \text{할리우드...}\} \text{ (CONTINUE)}$

d. 게다가 괴물은 눈물샘을 자극하면서도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한 첫 번째 영화이다.

$C_b = \text{괴물} ; C_f = \{\text{괴물}, \text{눈물샘}, \text{자극...}\} \text{ (CONTINUE)}$

위의 한국어 작문에서는 화제가 되는 초점이 '괴물'이라는 영화로써 비교적 일관되게 중심이 전개되고 있다. (6a)에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와 '괴물'이 동격을 이루므로 (6b)에서 '그것'은 당연히 괴물을 지칭하는 것이다. (6c)에서 실현된 중심은 약간 애매한데 술어에서 유추하건데 영조

응으로 실현된 주어는 역시 ‘괴물’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6d)에서 역시 중심이 ‘괴물’로 나타나면서 계속적으로 중심 전이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영어 작문에 비해서 한국어 작문이 ‘무엇’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론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는 텍스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에서 실현된 중심전이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한국어 작문이 비교적 일관성 있는 텍스트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두 작문 간 12%의 지속의 비율 차이는 언어의 능숙도와 텍스트의 일관성에 대해서 강력한 뒷받침을 해줄 만큼 아주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다. 학생들의 집단이 다소 소규모인데다가 전체 비율에서 차지하는 결과가 확연하게 눈에 띄는 대조적인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심 전이 양상을 언어의 능숙도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보다 다양하고 세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 4.2. 성적에 따른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의 중심전이 비교분석

위의 분석에서는 언어의 능숙도 여부가 과연 담화나 텍스트의 일관성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영어와 한국어 작문간의 중심 전이를 비교해 보았다. 초기 작성한 한국어 작문과 영어 작문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일반적인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어로 글을 쓰는데 있어서 영어에 비해서 문법적, 통사적으로 장애를 덜 받는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즉 통사적으로 한국어 구현은 영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능숙하다’라는 평가를 바탕으로 하였다. 따라서 두 언어 작문간의 비교로 인해 언어의 능숙도 여부와 텍스트의 일관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양간의 작문에서 실현된 중심 지속의 12%의 비율 차는 큰 대조 수치는 아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학생들에게 설문을 통해 이전 학년도 영어 성적을 상, 중, 하로 분류하여 답변하도록 하여 영어의 능숙도를 기준으로 그룹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기 실험 목적은 집단을 상, 중, 하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전체 그룹과 분석하는 것이었으나, 미완성된 자료여서 본 연구 분석 자료로 배제시킨 학생들의 대부분이 영어 성적을 중하위권으로 기록한 작문 자료들이었다. 그래서 본 결과분석에서는 중위권과 하위권 그룹을 하나로 묶어 상위권 그리고 중하위권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영어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의 영어 및 한국어 작문의 중심 전이 현상을 전체 그룹의 통계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 표 3. 영어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중심전이(A) VS. 전체 통계(B)와의 비교

	Continue		Retain		Smooth-Shift		Rough-Shift		TOTAL	
	N	%	N	%	N	%	N	%	N	%
상위 그룹(A)										
English	21	41%	1	2%	29	57%	0	0%	51	100%
Korean	18	55%	1	3%	14	42%	0	0%	33	100%
전체 그룹(B)										
English	26	39%	1	2%	39	59%	0	0%	66	100%
Korean	26	51%	1	2%	24	47%	0	0%	51	100%

표 3에서 보면 영어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의 영어 작문에서 실현된 중심의 전이 유형이 전체 그룹보다 일관성이 높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상위 그룹에서는 중심이 지속되는 비율이 영어 작문에서 41%, 한국어에서 55%로 나타났으며 이 비율은 전체 39%, 51%의 비율보다 분명히 높은

수치이다.

또한 순전이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위 그룹에서 실현된 비율이 영어 작문에서 57%, 한국어 작문에서 42%로 나타났으며, 전체 그룹에서 실현된 59%, 47%의 비율보다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룹을 영어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양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한국어 작문에서의 일관성 역시 높게 나타난 이유는 설문에 근거했을 때 영어 성적이 상위인 12명의 학생들 중 한명을 제외한 11명인 92%의 학생들의 국어 성적 역시 상위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어 성적에 따른 학생들의 한국어 작문에서 나타나는 일관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어 성적 상위권 그룹을 기준으로 하여 또 다시 국어 성적을 상위권과 중하위권으로 나누어 실현된 중심 전이에 대한 양상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영어 성적 상위 그룹 중 한국어 성적도 상위권인 그룹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4. 영어 성적 상위 그룹(A)중 한국어 성적 상위권인 그룹(B) 간 중심전이 비교

	Continue		Retain		Smooth-Shift		Rough-Shift		TOTAL	
	N	%	N	%	N	%	N	%	N	%
상위 그룹(A)										
English	21	41%	1	2%	29	57%	0	0%	51	100%
Korean	18	55%	1	3%	14	42%	0	0%	33	100%
국어 상위권(B)										
English	19	40%	1	2%	28	58%	0	0%	48	100%
Korean	17	57%	1	3%	12	40%	0	0%	30	100%

위의 표 4를 통해 영어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의 영어 작문에서 실현된 중심의 전이 비율은 이 학생들 중 국어 성적도 상위권인 학생들의 작

문에서 나타난 비율과 차이가 없었다. 즉 영어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영어 작문에서 실현된 중심의 지속 비율은 41%였고, 이 그룹 중 한국어 성적도 상위권인 학생들의 영어 작문에서 실현된 중심의 지속 비율 역시 40%의 거의 흡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영어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의 한국어 작문에서 나타난 중심의 지속 비율이 55%였고, 이들 학생들 중 한국어 성적도 상위권인 학생들의 한국어 작문에서 실현된 중심의 지속 비율 역시 57%로 약간 높지만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즉, 영어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의 92%가 한국어 성적도 좋았기 때문에 중심 전이 유형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어가 능숙한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능숙도에 따라 한국어 작문의 일관성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석이 필요했다. 따라서 영어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 중 한국어 성적은 중하위권인 학생의 작문에서 실현된 중심 전이 양상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보았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 표 5. 영어 성적 상위 그룹(A)중 한국어 성적 중하위권 그룹(B)간 중심전이 비교

	Continue		Retain		Smooth-Shift		Rough-Shift		TOTAL	
	N	%	N	%	N	%	N	%	N	%
상위 그룹(A)										
English	21	41%	1	2%	29	57%	0	0%	51	100%
Korean	18	55%	1	3%	14	42%	0	0%	33	100%
국어 하위권(B)										
English	2	67%	0	0%	1	33%	0	0%	3	100%
Korean	1	33%	0	0%	2	67%	0	0%	3	100%

위의 표 5를 살펴보면 영어 성적 상위 그룹 중 한국어 성적이 중하위

권인 학생 한 명의 한국어 작문에서 실현된 중심의 지속 비율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영어 상위권 그룹에서 한국어 작문의 중심 전이 비율은 지속에서 55%, 순전이에서 42%로 실현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 그룹에서 한국어 성적이 중하위권에 머무는 단 한명의 학생의 작문에서 실현된 중심의 지속 비율은 33%로 22%나 떨어졌고, 순전이도 67%로 25% 높아졌다. 그럼, 이와 같이 일관성이 떨어진 결과로 나타난 모습이 이 학생의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의 예를 통해 살펴보겠다. 먼저 영어 작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a. My best friend is Myung-Su.

b. He is Yongsan high school student.

$C_b = \text{he} ; C_f = \{\text{he, student}\}$  (CONTINUE)

c. He is very kind to me.

$C_b = \text{he} ; C_f = \{\text{he, me}\}$  (CONTINUE)

d. Also, we have no secrets.

$C_b = \text{we} ; C_f = \{\text{we, secrets}\}$  (SMOOTH-SHIFT)

위의 영어 작문에서는 화제가 되는 초점이 'Myung-Su'로써 비교적 일관되게 중심이 전개되고 있다. (7a)에서 'my best friend'와 'Myung-Su'는 동격을 이루므로 (7b)에서의 중심 'he'는 당연히 'Myung-Su'를 지칭하는 것이다. (7c)에서 역시 중심이 'he'로 실현되어 중심이 이전 발화와 지속되고 있다. 단, 마지막 문장 (7d)에서 중심은 'we'로 순전이되어 중심의 계속적인 지속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문맥상 그리 어색하진 않다. 즉, 영어 성적 상위 그룹 중 한국어 성적이 중하위인 학생의 영어 작문에서는 중심이 일관되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의 한국어 작문에서는 중심 전이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다음 예를 통하여 살펴보자.

(8) a.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투모로우입니다.

b.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영화가 공상 과학영화이기  
때문입니다.

$C_b = \text{이유} ; C_f = \{\text{영화, 이유, ..}\}$  (SMOOTH-SHIFT)

c. 저는 평소에 과학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C_b = \text{저} ; C_f = \{\text{저, 과학, 관심..}\}$  (SMOOTH-SHIFT)

d. 이 영화에서 저에게 가장 특별하게 와 닿는 부분은 줄거리입니다.

$C_b = \text{부분} ; C_f = \{\text{영화, 부분, 줄거리...}\}$  (SMOOTH-SHIFT)

위의 (8)의 한국어 작문에서는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이 약간 어색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문장마다 중심이 계속 순전이되어 이전 문장과 동일한 초점으로 지속되지 못하는 것 알 수 있다. (8b)에서는 중심이 ‘이유’가 되어 순전이되고 있지만 크게 문맥에서 어색하진 않다. 하지만, (8c)에서는 갑자기 ‘저’로 시작하면서 이전 문장과 연결 관계가 어색하다. 마지막 문장 (8d) 역시 전체적인 흐름과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중심 역시 ‘부분’으로 순전이 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즉, 영어 성적이 상위이면서 국어 성적은 하위인 동일 학생의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을 비교한 결과 한국어 작문에서 텍스트의 일관성이 낮은 결과로 분석되었다.

지금까지 영어 성적 상위 그룹을 전체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영어 작문에서 중심의 지속 비율이 낮아진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 그룹을 다시 한국어 성적을 기준으로 세분화 시켰을 경우 한국어 성적이 상위권

인 학생들의 한국어 작문은 비슷한 일관성을 보였지만, 한국어 성적이 중하위권에 머무는 단 한 학생의 한국어 작문에서 일관성이 떨어진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모국어이던 외국어이던 해당 언어의 능숙도와 텍스트의 상관관계는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심화 규칙이 정문이나 비문이나 하는 문장 자체의 정형성이 아니라 자연스러움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선호의 정도를 규명하고자 하는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가설과는 반대로 해당 언어에 대한 능숙도가 높은 그룹이 전체 그룹 보다 일관성 있는 텍스트를 구현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중하위 그룹과 전체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 표 6. 영어 성적 중하위권 학생들의 중심전이(A) VS. 전체 통계(B)와의 비교

	Continue		Retain		Smooth-Shift		Rough-Shift		TOTAL	
	N	%	N	%	N	%	N	%	N	%
중하위 그룹(A)										
<b>English</b>	5	33%	0	0%	10	67%	0	0%	<b>15</b>	<b>100%</b>
<b>Korean</b>	8	44%	0	0%	10	56%	0	0%	<b>18</b>	<b>100%</b>
전체 그룹(B)										
<b>English</b>	26	39%	1	2%	39	59%	0	0%	<b>66</b>	<b>100%</b>
<b>Korean</b>	26	51%	1	2%	24	47%	0	0%	<b>51</b>	<b>100%</b>

표 6을 살펴보면 영어 성적의 중하위 그룹이 전체 그룹에 비해 중심이 지속되는 비율이 낮은 반면, 중심의 순전이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중하위 그룹에서는 중심이 지속되어 실현된 경우가 영어 작문에서는 33%로 전체 그룹에서의 39% 비율보다 6%나 감소되었으며, 한국어 작문에서 역시 44%로 전체 그룹의 51%보다 7% 낮은 비율을 보였

다. 하지만 순전이의 경우는 중하위 그룹이 영어 작문에서 67%, 한국어 작문에서 56%로 전체 그룹의 59%, 47%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위의 경우에 있어서도 영어 성적을 기준으로 중하위권과 전체 그룹 간의 비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작문에서 나타나는 중심 전이의 지속 비율 역시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학생들에게 국어가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 국어 성적에 따른 차이가 한국어 작문의 일관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영어 성적이 중하위권인 학생들을 다시 한국어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상위 그룹과 중하위 그룹으로 분류하여 중심이 변화되고 있는 양상에 대해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먼저 영어 성적이 중하위권인 학생들 중 국어 성적은 상위권 학생들의 작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7. 영어 성적 중하위 그룹(A) 중 한국어 성적 상위 그룹(B)간 중심전이 비교

	Continue		Retain		Smooth-Shift		Rough-Shift		TOTAL	
	N	%	N	%	N	%	N	%	N	%
중하위 그룹(A)										
English	5	33%	0	0%	10	67%	0	0%	15	100%
Korean	8	44%	0	0%	10	56%	0	0%	18	100%
국어 상위권(B)										
English	2	33%	0	0%	4	67%	0	0%	6	100%
Korean	3	50%	0	0%	3	50%	0	0%	6	100%

표 7을 살펴보면 영어 성적 중하위 그룹에서 나타난 영어 작문의 중심 전이 양상과 이들 학생들 중 한국어 성적은 상위 그룹에서 나타난 영어 작문의 중심 전이 양상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영어 성적 중하위 그룹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한국어 성적은 상위인 그룹을 비교해 보

면 한국어 작문에서는 중심의 지속비율이 6% 높아진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즉, 국어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의 한국어 작문이 더욱 일관성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영어 성적과 국어 성적이 모두 중하위권인 학생들의 작문에서 나타나는 중심 전이 양상에 대해서 다음 표를 통해 살펴보겠다.

\* 표 8. 영어 성적 중하위 그룹(A) 중 한국어 성적 중하위 그룹(B)간 중심전이 비교

	Continue		Retain		Smooth-Shift		Rough-Shift		TOTAL	
	N	%	N	%	N	%	N	%	N	%
중하위 그룹(A)										
English	5	33%	0	0%	10	67%	0	0%	15	100%
Korean	8	44%	0	0%	10	56%	0	0%	18	100%
국어 하위권(B)										
English	3	33%	0	0%	6	67%	0	0%	9	100%
Korean	5	42%	0	0%	7	58%	0	0%	12	100%

위의 표 8을 살펴보면 영어 성적이 중하위권인 학생들 중 국어 성적 역시 중하위권인 학생들의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에서 모두 중심의 지속 비율이 순전이 비율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영어 작문의 경우에는 두 그룹 모두 중심 지속 비율이 33%, 순전이 비율이 67%로 동일하게 일관성 없는 텍스트의 양상을 보였다.

또한, 영어 성적 중하위 그룹의 한국어 작문에서 중심의 지속 비율이 44%이고, 이들 중 국어 성적 역시 중하위 그룹의 한국어 작문에서 중심의 지속 비율은 42%였다. 즉 2% 더 낮은 결과를 보이면서 모국어인 국어 성적도 한국어의 작문을 일관성 있게 쓰는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영어의 능숙도가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국어 능숙도가 높으면 한국어 작문은 일관성 있는 텍스트로 구성해 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언어의 능숙도가 그 언어로 구사되는 텍스트의 일관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 해주는 결과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어 성적을 기준으로 영어 상위권 그룹과 전체 그룹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영어 상위 그룹과 중하위 그룹에서 나타난 결과 자체를 대조해 보기로 하겠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의 표와 같다.

\* 표 9. 영어성적 상위 그룹 중심전이(A) VS. 중하위 그룹(B) 중심전이 비교

	Continue		Retain		Smooth-Shift		Rough-Shift		TOTAL	
	N	%	N	%	N	%	N	%	N	%
상위 그룹(A)										
<b>English</b>	21	41%	0	2%	29	57%	0	0%	<b>51</b>	<b>100%</b>
<b>Korean</b>	18	55%	1	3%	14	42%	0	0%	<b>33</b>	<b>100%</b>
중하위 그룹(B)										
<b>English</b>	5	33%	0	0%	10	67%	0	0%	<b>15</b>	<b>100%</b>
<b>Korean</b>	8	44%	0	0%	10	56%	0	0%	<b>18</b>	<b>100%</b>

위의 표 9를 살펴보면 상위 그룹에서 영어 작문의 중심이 지속되는 비율이 41%로 중하위 그룹의 33% 비율보다 6%나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상위 그룹에서 중심이 순전이되는 경우는 57%로 중하위 그룹의 67%보다 10%나 낮은 결과를 보여 전반적으로 상위 그룹의 학생들의 작문이 중하위 그룹의 작문보다 일관성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 다음에서 상위 그룹 학생의 영어 작문과 중하위 그룹 학생의 영어작문을 예를 들어

살펴보겠다.

(9) a. I think real friend always believe me in any situations.

b. Hyeyon always believe me.

$C_b = \text{Hyeyon} ; C_f = \{\text{Hyeyon, me}\}$  (SMOOTH-SHIFT)

c. She always came to me when I fall in trouble,

$C_b = \text{she} ; C_f = \{\text{she, I ...}\}$  (CONTINUE)

d. and ∅(she) heard what I said about my feeling.

$C_b = \text{she} ; C_f = \{\text{she, I ...}\}$  (CONTINUE)

e. So, sometimes I depend on her.

$C_b = \text{her} ; C_f = \{\text{I, her}\}$  (RETAIN)

f. She also depend on me.

$C_b = \text{she} ; C_f = \{\text{she, me}\}$  (CONTINUE)

g. I think we are best friends each other.

$C_b = \text{I} ; C_f = \{\text{I, best friends}\}$  (SMOOTH-SHIFT)

위 (9)는 상위 그룹 학생들 중 하나의 영어 작문에 대한 예이다. 작문의 화제가 되는 'best friend'라는 초점이 비교적 일관된 중심을 지속하면서 전개되고 있다. (9c)에서는 이전 문장의 중심 'Hyeyon'을 대명사 'she'로 지칭하여 중심을 지속시키고 있으며, 다음 등위접속으로 연결된 (9d)문장에서는 영조응을 통해 중심을 지속시키고 있다. 그 이후 문장들에서 역시 문장의 중심이 초기 거론된 'Hyeyon'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론되면서 일관성 있는 텍스트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10) a. My favorite friends are who help each other and like me.

b. I don't like friend who don't like me.

$C_b = I ; C_f = \{I, \text{friend}\}$  (SMOOTH-SHIFT)

c. A best friend is do not tell lie and honest to each other.

$C_b = \text{a best friend} ; C_f = \{\text{best friend, family}\}$

(SMOOTH-SHIFT)

반면에 위 (10)의 중하위권 그룹의 학생들 중 하나의 예를 살펴보면, (9)에 비해 텍스트의 일관성이 떨어짐을 직관적으로도 느낄 수 있다. 단 3개의 짧은 문장들로 이루어진 글이지만 각 문장들의 중심이 'I'에서 'best friend'로 순전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9)보다 일관성이 떨어지는 텍스트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언어의 능숙함 여부가 텍스트의 일관성과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중심화 규칙은 정문이나 비문이나 하는 문장 자체의 정형성이 아니라 자연스러움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선호의 정도를 규명하고자 하는 규칙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앞서 가설의 설정단계에서도 텍스트의 일관성 여부가 통사적·문법적인 접근을 통하여 텍스트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므로 언어 자체의 능숙도 여부가 텍스트를 일관성 있게 전개하는 능력과는 무관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학생들의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 간에서 또 영어 성적에 따른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간의 작문에서 중심 전이의 비율이 유의미한 대조를 보였다. 즉, 텍스트란 결국 문장들 간의 결합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문장 간의 연결과 관심 상태를 일관성 있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장 구성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해 텍스트를 일관성 있게 전개하는 능력은 논리적인 사고력과 부합하므로 해당 언어 구사 능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였지만, 이러한 텍스트의 전개능력은 언어 자체를 구현하는 능력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그에 따른 인지적인 노력이 수반되는데 해당 언어의 능숙도가 떨어질 경우, 즉 한 문장 한 문장 구현해 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화자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글을 매끄럽고 일관성 있게 전개하기 위한 노력을 상대적으로 덜 기울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나무를 그려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여 노력을 쏟음으로써 전체적인 숲을 그려내는 과정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글을 쓸 때뿐만이 아니다. 비모국어 화자들이 연설이나 대화를 진행할 경우 자동적이고 능숙한 문장 구현이 불가능한 경우 하나씩 문법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상황에 비적절한 언어를 구사하기도 한다. 즉, 말이나 글을 잘하고 잘 쓰기 위해서는 우선 능숙한 언어 구사력이 밑바탕 되어야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다.

#### 4.3. 성적에 따라 번역 과정에서 실현되는 중심전이 비교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언어 능숙도와 텍스트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의 비교뿐만 아니라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과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중심전이의 유형 역시 비교해 보았다.

앞서 학생들의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의 중심전이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 작문에서 중심의 지속 비율이 더 높게 실현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결과 분석 과정에서 영어를 비모국어로 하는 학생들의

경우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더 능숙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능숙도가 높을수록 일관성 있는 텍스트를 구현해 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영어 작문을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중심의 지속 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한국어 작문을 영어로 번역할 경우 중심의 지속 비율이 더 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즉, 번역된 작문의 경우에도 한국어로 구현된 경우가 더 일관성이 높은 텍스트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번역과정에서 실제 실현된 중심전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10. 영한, 한영의 번역과정에서 실현된 중심전이 비교

	Continue		Retain		Smooth-Shift		Rough-Shift		TOTAL	
	N	%	N	%	N	%	N	%	N	%
영->한										
English	26	39%	1	2%	39	59%	0	0%	66	100%
to Korean	23	36%	1	2%	40	63%	0	0%	64	100%
한->영										
Korean	26	51%	1	2%	24	47%	0	0%	51	100%
to English	20	48%	1	2%	21	50%	0	0%	42	100%

위의 표 10을 살펴보면 실제 영한, 한영의 번역과정 시 모두 번역된 이후 중심 실현의 지속 비율이 낮아진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먼저 한국어 작문을 영어로 번역했을 경우 중심이 지속되는 비율이 51%에서 48%로 떨어진 결과를 보여 앞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학생들의 영어 작문을 한국어로 번역했을 경우에도 중심의 지속 실현 비율이 39%에서 36%로 나타나 오히려 약간 일관성이 떨어진 텍스트의 결과를 보였다. 앞에서 학생들의 한국어 작문이 영어 작문에서보다

더 일관성 있는 텍스트의 결과를 보였으므로 영어 작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경우에도 중심이 지속되는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날 것을 예상하였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학생들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래 초기 작성된 작문보다 오히려 일관성이 떨어진 텍스트를 구현한 결과를 보인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그 원인은 한국어로의 번역과정에서 학생들이 글의 주제와 전개에 대한 생각보다는 문장을 하나씩 번역해 나아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숲을 보면서 이전 문장과 다음 문장 간의 내용적인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고 초기 작성된 영어 문장들을 한국어로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관성 없는 번역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다면 언어의 능숙도가 번역된 텍스트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번역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덜 겪는 영어에 능숙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번역 과정에서 실현되는 중심의 전이를 살펴보았다. 이것 역시 영어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분석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 표 11. 영어 성적 상위 그룹과 중하위 그룹간의 영한 번역시 나타나는 중심전이 비교

	Continue		Retain		Smooth-Shift		Rough-Shift		TOTAL	
	N	%	N	%	N	%	N	%	N	%
상위 그룹(A)										
English	21	41%	0	2%	29	57%	0	0%	51	100%
to Korean	20	41%	1	3%	28	57%	0	0%	49	100%
중하위 그룹(B)										
English	5	33%	0	0%	10	67%	0	0%	15	100%
to Korean	3	20%	0	0%	12	80%	0	0%	15	100%

위의 표 11을 살펴보면 영어 성적이 상위 그룹인 학생들의 경우 영어 작문을 한국어로 번역했을 시 동일한 중심 전이 양상을 보였다. 즉,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음을 관찰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어 성적이 중하위권인 학생들의 경우 영어 작문에서 중심의 지속 비율이 33%였고, 한국어로 다시 번역했을 경우 20%로 낮아져 오히려 한국어 번역본이 더 일관성이 결여된 텍스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어의 능숙도가 영어 텍스트 자체의 구현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시 영어가 능숙할수록 번역된 한국어 텍스트 역시 일관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언어의 능숙도와 텍스트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 4.4. 성적에 따라 실현된 중심의 위치에 대한 비교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심화 이론의 전향 중심에 대한 상대적 현저성에 대한 서열과 구정보(old/given information)/신정보(new information) 원칙을 근거로 하여 중심의 실현 위치를 성적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Prince(1981)의 주장에 따르면 담화 규칙은 공유된 정보, 즉 구정보가 신정보보다 선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문두에 신정보가 붙쑥 나오는 것은 독자로서 하여금 새로운 정보에 대한 추론을 가중시키므로 되도록이면 이전에 언급된 주어진 정보를 문두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중심화 이론이란 대명사의 조응관계와 화자의 관심 상태를 계산적으로 모형화한 이론이므로 담화에서 중심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당연한 발화의 가장 원편인 주어 자리에 공유된 정보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목적어 보다 주어에서 중심의 실현 빈도가 더 높을수록 일관성 있는 텍스트다’라고 간주하고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한국어 작문과 영어 작문에서 나타나는 중심의 실현 위치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럼, 먼저 학생들의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에서 나타나는 중심의 실현 위치에 대해 살펴보겠다.

\* 표 12.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에서 중심 실현 위치에 대한 비교

	Subject		Object		etc		TOTAL	
	N	%	N	%	N	%	N	%
<b>English</b>								
Overt NP	60	91%	1	2%	2	3%	63	95%
Zero NP	3	5%	0	0%	0	0%	3	5%
TOTAL	63	95%	1	2%	2	3%	66	100%
<b>Korean</b>								
Overt NP	31	61%	1	2%	0	0%	32	63%
Zero NP	19	37%	0	0%	0	0%	19	37%
TOTAL	50	98%	1	2%	0	0%	51	100%

위의 표 12에서 살펴보면 학생들의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의 경우 모두 중심이 주어의 위치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 영어 작문의 경우는 영조응과 명시적인 명사구를 합쳐서 중심이 주어에서 실현된 비율이 95%로 나타났으며, 한국어의 작문에서는 98%의 비율로 나타나 한국어 작문에서 3%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3%의 낮은 차이지만 분명 한국어 작문에서 중심이 주어로 실현된 비율이 더 높

았다.

그렇다면 영어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학생들의 영어 작문에서 실현되는 중심의 위치는 어떠한지 살펴보겠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 표 13. 영어 성적에 따른 영어 작문의 중심 실현 위치에 대한 비교

English	Subject		Object		etc		TOTAL	
	N	%	N	%	N	%	N	%
상위그룹(A)								
Overt NP	45	92%	0	0%	1	2%	63	94%
Zero NP	3	6%	0	0%	0	0%	3	6%
TOTAL	48	98%	0	0%	1	2%	49	100%
중하위 그룹(B)								
Overt NP	15	88%	1	6%	1	6%	17	100%
Zero NP	0	0%	0	0%	0	0%	0	0%
TOTAL	15	88%	1	6%	1	6%	17	100%

위의 표 13을 살펴보면 영어 성적이 상위권인 그룹의 영어 작문에서는 중심이 주어의 위치에서 실현된 비율이 98%의 결과를 보였다. 반면 영어 성적이 중하위권인 그룹의 영어 작문에서는 중심이 주어 위치에서 실현된 비율이 88%로 상위권 비율과 10%의 대조로 중심의 주어 실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비율 상 주어 중심 실현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전체적인 중심 전이의 비율이 지속과 순전이에서 높은 비율의 결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즉 담화의 중심이 지속되는 경우 이전 발화와 중심이 같을 뿐 아니라 현 발화에서도 중심 선호도인 주어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심의 위치가 주어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순전이에서는 이전 발화와 현 발화의 중심이 동일하진 않지만 현 발

화의 중심이 다음 발화에서 중심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심 선호도의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어의 위치에 중심이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중심 전이 유형이 지속과 순전이어서 높은 결과를 보인 이상 중심은 통사적인 위치가 주어 자리에서 현저하게 높은 비율로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영어 상위권과 중하위권 학생들의 영어 작문에서는 주어의 중심 실현 비율이 대조를 보였는데, 이는 영어 상위권인 학생들의 영어 작문에서 구정보가 신정보를 선행하는 비율이 하위권 학생들의 작문보다 높음으로써 좀 더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여기서도 언어가 능숙할수록 일관성 있는 텍스트의 양상으로 글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더욱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 이번엔 국어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을 나누어 학생들의 한국어 작문에서 나타나는 중심 실현의 위치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해 보겠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 표 14. 국어 성적에 따른 국어 작문의 중심 실현 위치에 대한 비교

Korean	Subject		Object		etc		TOTAL	
	N	%	N	%	N	%	N	%
<b>상위그룹(A)</b>								
Overt NP	21	60%	0	0%	0	0%	<b>21</b>	<b>60%</b>
Zero NP	14	40%	0	0%	0	0%	<b>3</b>	<b>5%</b>
<b>TOTAL</b>	<b>35</b>	<b>100%</b>	<b>0</b>	<b>0%</b>	<b>0</b>	<b>0%</b>	<b>35</b>	<b>100%</b>
<b>중하위 그룹(B)</b>								
Overt NP	10	63%	1	6%	0	0%	<b>11</b>	<b>69%</b>
Zero NP	5	31%	0	0%	0	0%	<b>5</b>	<b>31%</b>
<b>TOTAL</b>	<b>15</b>	<b>94%</b>	<b>1</b>	<b>6%</b>	<b>0</b>	<b>0%</b>	<b>16</b>	<b>100%</b>

위의 표 14를 살펴보면 국어 성적이 상위권인 그룹의 한국어 작문에서는 중심이 주어의 위치에서 실현된 비율이 100%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전체적인 비율 98%보다 2% 올라간 수치이다. 반면 국어 성적이 중하위권인 그룹의 한국어 작문에서는 중심이 주어 위치에서 실현된 비율이 94%로 상위권 비율과 6%의 대조로 중심의 주어 실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언어의 능숙도가 높을수록 해당 언어로 구현된 텍스트에서 중심의 실현 위치가 목적어보다 주어에서 더 높았다. 즉, 언어가 능숙할수록 구정보/신정보 원칙에 근거하여 더 일관성 있는 텍스트의 양상을 보였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분석에서도 언어의 능숙도와 텍스트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 4.5.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에서 실현된 영조응 비교분석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에서 실현된 영조응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보겠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장석진(1994)에 따르면, 영어에서 대명사로 실현되는 현상이 한국어에서는 영조응으로 우선 실현된다고 하였다. 사실 이들은 모두 조응이라는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특정 언어와 상황에 따라서 대명사/대동사 등으로 실현될 수도 있고 영조응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같은 동양권 언어의 특성상 대명사 보다는 생략형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의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의 비교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나타나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또한 한국어 작문에서 실현되는 영조응은 학생들의 성적과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한다. 먼

저 학생들의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에 대한 영조응 비교 분석을 하였는데, 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 표 15 . 학생들의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 간 실현된 영조응 비교

	Continue		Retain		Smooth-Shift		Rough-Shift		TOTAL	
	N	%	N	%	N	%	N	%	N	%
<b>English</b>										
Overt NP	25	38%	1	2%	37	56%	0	0%	63	95%
Zero NP	1	2%	0	0%	2	3%	0	0%	3	5%
TOTAL	26	39%	1	2%	39	59%	0	0%	66	100%
<b>Korean</b>										
Overt NP	15	29%	1	2%	16	31%	0	0%	32	63%
Zero NP	11	22%	0	0%	8	16%	0	0%	19	37%
TOTAL	26	51%	1	2%	24	47%	0	0%	51	100%

위의 표 15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영어 작문의 경우 영조응으로 중심이 실현된 비율이 전체 비율에서 5%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어 작문의 경우에는 37%를 차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장석진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영조응의 중심 실현 비율이 학생들의 영어 작문보다 한국어 작문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럼 학생들의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영조응 실현 양상을 예를 들어 살펴보겠다.

(11) a.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드림걸즈’이다.

b. 이 영화는 기대한 것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C_b = \text{이 영화}$  ;  $C_f = \{\text{영화}\}$  (CONTINUE)

c.  $\emptyset$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봐도 좋은 영화다.

$C_b = \text{이 영화}$  ;  $C_f = \{\emptyset(\text{영화}), \text{친구}, \text{가족}\}$  (CONTINUE)

d. ∅ 가족, 친구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고,

$C_b = \text{나는}$  ;  $C_f = \{\text{나, 가족, 친구, 소중함}\}$

(SMOOTH-SHIFT)

e. ∅ 여러 교훈이 담겨져 있었다.

$C_b = \text{교훈}$  ;  $C_f = \{\text{I, she, } \emptyset(\text{영화에는})\}$  (CONTINUE)

f. ∅ 꿈을 심어주는 영화인거 같다.

$C_b = \text{이 영화}$  ;  $C_f = \{\text{영화, 꿈}\}$  (SMOOTH-SHIFT)

위의 예에서 보면, 한국어의 중심 실현이 대부분 생략된 형태로 나타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11b)에서 ‘이 영화’로 실현된 중심은 (11c)에서는 초점이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주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영조응으로 중심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11d)에서 역시 주어 자리에 ‘나’라는 대상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중심이 영조응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11f)에서도 실현된 중심이 주어 자리에서 생략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한국어에서 중심을 명시적인 실체로 언급하지 않은 원인은 대부분의 경우 독자로 하여금 생략형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1c)에서는 ‘~영화다’라는 술어를 통해 충분히 독자로 하여금 인지적으로 생략된 주어를 복원시켜 해석할 수 있었으며, (11d)에서 역시 소중함을 느끼는 대상이 글을 쓰는 주체이고 따라서 ‘나’라는 영조응 중심에 대한 해결이 가능했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의 비교뿐만 아니라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과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대명사의 영조응 실현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다. 결과에 대한 통계 수치

는 다음 표와 같다.

\* 표 16 . 한영, 영한 번역과정에서 실현된 영조응 비교

	Center Realization			Center Realization	
	N	%		N	%
<b>English</b>			<b>Korean</b>		
Overt NP	63	95%	Overt NP	32	63%
Zero NP	3	5%	Zero NP	19	37%
<b>TOTAL</b>	<b>66</b>	<b>100%</b>	<b>TOTAL</b>	<b>51</b>	<b>100%</b>
<b>English to Korean</b>			<b>Korean to English</b>		
Overt NP	60	94%	Overt NP	40	95%
Zero NP	4	6%	Zero NP	2	5%
<b>TOTAL</b>	<b>64</b>	<b>100%</b>	<b>TOTAL</b>	<b>42</b>	<b>100%</b>

위의 표 16을 살펴보면 왼편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나타난 중심의 실현 양상이며, 오른편의 경우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경우 나타난 중심의 실현 양상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학생들의 영어와 한국어 작문의 비교에 있어서는 한국어 작문의 경우에서 영조응의 실현 분포가 더 높게 나타났었다. 그렇다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선 영조응의 분포가 더 높아질 것이며,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선 영조응의 분포가 더 낮아질 것이라는 자연스러운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보면 후자의 경우만이 사실로 나타났으며,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조응의 실현 비율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초기 학생들이 영어로 작문한 텍스트에서 영조응의 비율이 5%만을 차지하였으나, 본인의 작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결과 나타난 영조응의 비율도 6%로 나타나 영한 번역시 영조응의 중심 실현에 대한 분포는 동일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 원인은 학생들이 영어로 쓴 작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

국어에 바탕을 둔 인지구조로 글을 쓴 다기 보다는 각 영어 문장 나타난 단어들의 배합을 바탕으로 하나씩 직역하면서 텍스트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역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텍스트에서 주로 나타나는 영조응의 실현과정이 드러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어로 쓴 작문을 영어로 다시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생략된 영조응들이 많은 부분 복원되어 전체적인 영조응의 비율이 5%로 줄어든 결과를 보였다. 즉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영어라는 언어의 통사 구조상 주어의 생략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 작문에서 영조응 실현은 문법적인 오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여 학생들의 한국어 작문에서 실현되는 영조응이 학생들의 국어 성적과도 관련이 있는지도 분석해 보았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 표 17. 국어 성적 상위 그룹(A)과 중하위 그룹(B)간의 실현된 영조응 비교

	Continue		Retain		Smooth-Shift		Rough-Shift		TOTAL	
	N	%	N	%	N	%	N	%	N	%
<b>상위 그룹(A)</b>										
Overt NP	12	33%	1	3%	9	25%	0	0%	22	61%
Zero NP	8	22%	0	0%	6	17%	0	0%	14	39%
<b>TOTAL</b>	<b>20</b>	<b>56%</b>	<b>1</b>	<b>3%</b>	<b>15</b>	<b>42%</b>	<b>0</b>	<b>0%</b>	<b>36</b>	<b>100%</b>
<b>중하위 그룹(B)</b>										
Overt NP	3	20%	0	0%	7	47%	0	0%	10	67%
Zero NP	3	20%	0	0%	2	13%	0	0%	5	33%
<b>TOTAL</b>	<b>20</b>	<b>40%</b>	<b>0</b>	<b>0%</b>	<b>9</b>	<b>60%</b>	<b>0</b>	<b>0%</b>	<b>15</b>	<b>100%</b>

위의 표 17을 살펴보면 국어 성적 상위 그룹에서 실현된 영조응 비율은 39%인 반면 중하위권 그룹에서 실현된 영조응 비율은 33%로 6% 낮

아진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국어 성적 상위 그룹이 중하위 그룹보다 한 국어 작문에서 영조응 실현 분포가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다시 말해 영조응의 실현 빈도가 언어의 능숙도 여부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 IV.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의 목적대로 한국인 학습자들이 실제 작성한 작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각각의 중심의 전이현상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언어의 능숙도와 텍스트의 일관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 학생들의 영어 및 국어 성적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양분하여 그룹 간 실현된 중심전이 양상을 비교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성적에 따라 번역과정에서 실현되는 중심 전이의 비교분석과 중심의 위치에 대한 비교분석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른 결론을 보다 일반화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에서 실현된 중심전이 양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어 작문에서 중심이 지속적으로 실현된 비율이 영어 작문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즉, 언어의 능숙도 여부가 텍스트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둘째, 성적에 따른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의 중심전이 비교 분석 결과 해당 언어의 성적이 높을수록 텍스트의 일관성도 높은 결과를 보였다. 첫 번째 결론을 뒷받침 해주기 위해 본 연구는 영어 성적이 상위권 그룹과 전체 그룹, 중하위권 그룹과 전체그룹 그리고 영어 상위권과 중하위권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 간의 결과를 다시 비교하였다.

결과는 영어 성적이 상위권인 그룹의 중심전이의 지속 비율이 전체 그

룹보다 높게 나타났고, 중하위권 그룹의 중심전이 지속 비율이 전체 그룹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영어 성적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 간의 대조에서는 상위 그룹의 중심전이 지속 비율이 중하위 그룹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본 실험 결과 영어 성적을 기준으로 그룹 간 비교를 하였지만, 영어의 능숙도가 한국어 작문의 일관성에도 차이를 가져왔다. 따라서 영어가 능숙한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능숙도에 따라 한국어 작문의 일관성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영어 성적 상위권 그룹 중 한국어 성적도 상위권인 그룹과 중하위권인 그룹으로 나누어 실현된 중심의 전이양상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영어의 능숙도가 높은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 국어 성적이 낮으면 한국어 작문에서 중심이 지속으로 실현되는 비율 역시 낮아져 일관성이 결여된 작문을 구성해 낸다는 결론이 나왔다. 아울러 영어의 능숙도가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어 성적이 높으면 일관성 있는 한국어 작문을 구성해 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들 성적에 따른 중심전이의 분석에서도 언어의 능숙도가 높을수록 더욱더 일관성이 높은 글쓰기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즉, 해당언어의 능숙도가 그 언어로 구사되는 텍스트의 일관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였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언어의 능숙함 여부가 텍스트의 일관성과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가설의 단계에서 텍스트를 일관성 있게 전개하는 능력은 논리적인 사고력과 부합하므로 해당 언어 구사 능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였지만, 이러한 텍스트의 전개능력은 언어 자체를 구현하는 능력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결론

을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그에 따른 인지적인 노력이 수반되는데 해당 언어의 능숙도가 떨어질 경우, 즉 한 문장 한 문장 구현해 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화자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글을 매끄럽고 일관성 있게 전개하기 위한 노력을 상대적으로 덜 기울이기 때문이다.

셋째, 성적에 따라 번역 과정에서 실현되는 중심 전이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영어의 능숙도가 영어 텍스트 자체의 일관성 구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시 영어가 능숙할수록 번역된 한국어 텍스트 역시 일관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언어의 능숙도와 텍스트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전에 도출된 결론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언어의 능숙함이 번역된 이후의 텍스트에서의 일관성에도 영향을 주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원인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어의 능숙도가 떨어질 경우 번역본 자체에서 글의 전개와 주제에 대한 생각보다는 문장을 하나씩 직역해 나아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즉, 이전 문장과 다음 문장 간의 내용적인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고 초기 작성된 영어 문장들을 한국어로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관성 없는 번역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넷째, 성적에 따른 중심 실현의 위치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영어 성적과 국어 성적이 상위인 그룹이 중하위 그룹보다 중심이 목적어보다 주어에서 더 높은 비율로 실현되었다. 즉, 해당 언어가 능숙할수록 구정보/신정보 원칙에 근거하여 더 일관성 있는 텍스트의 양상을 보였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에서 나타나는 영조응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미 검증된 사실대로 영조응의 실현 비율이 학생들의 영어 작문보다 한국어 작문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 작문에서 실현되는 영조응의 비율은 국어 성적 상위 그룹이 중하위 그룹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즉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수록 학생들의 한국어 작문에서 자연스럽게 영조응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 2. 연구의 제한점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일관된 담화나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언어의 사용에 대한 능숙함이 필요하다. 즉, 해당언어에 대한 구현 능력이 능숙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일관성 있는 담화나 텍스트를 구성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텍스트란 문장들 간의 결합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문장 간의 연결과 관심 상태를 일관성 있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장 구성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해 텍스트를 일관성 있게 전개하는 능력은 언어 자체를 구현하는 능력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그에 따른 인지적인 노력이 수반되는데 해당 언어의 능숙도가 떨어질 경우, 즉 한 문장 한 문장 구현해 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화자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글을 매끄럽고 일관성 있게 전개하기 위한 노력을 상대적으로 덜 기울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나무를 그려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여 노력을 쏟음으로써 전체적인 숲을 그려내는 과정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글을 쓸 때뿐만이 아니다. 비모국어 화자들이 연설이나 대화를

진행할 경우 자동적이고 능숙한 문장 구현이 불가능한 경우 하나씩 문법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상황에 비적절한 언어를 구사하기도 한다. 즉, 말이나 글을 잘하고 잘 쓰기 위해서는 우선 능숙한 언어 구사력이 밑바탕 되어야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영어 교사들이 과정 중심 쓰기에 대한 교수를 진행할 경우 학생들의 영어습득의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 능력이 중급이상 수준인 학습자들의 경우 주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쓰는 과정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각각의 단문들을 만들어 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에게는 오히려 언어의 구조와 어휘를 병행하여 문장들을 생성해 내는 훈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설정한 실험집단의 규모가 위와 같은 사항들을 전적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작은 규모였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 학습자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어 능숙도가 영어 능숙도보다 높을 것이라는 가정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언어 능숙도가 성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가령 영어나 국어 성적이 높다는 것은 해당 언어를 능숙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정은 가능하지만, 언어 성적과 실제 구현에서의 능숙함에서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언어의 능숙도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측정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김미영(2004). 한국어 영형 대응의 해결과 최적성 이론. **담화와 인지**, 제 11권 3호, 25-56.
- 양재형(1997). 중심화 이론과 한국어의 분석. **산학기술연구소 논문집** 제 3호, 107-119.
- 장석진(1994). **통합문법론-담화와 화용**. 서울대학교출판부.
- 장석진(1995). **정보 기반 한국어 문법**. 한신문화사.
- 정국, 장석진, 최재웅, 이민행, 정소우, 박여성(1998). 음성언어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한국어의 운율구조 및 담화연구. **KAIST 인공지능 연구센터**.
- 이용주(2001). 한국어 영 조응 해결을 위한 대화 처리의 인지적 통합 모형 연구. 연세대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Grosz, Babara and Candace Sidner(1986). Attention, Intentions and the Structure of Discourse. **Computational Linguistics** 12, 175-204.
- Grosz, Babara, Aravind Joshi and Scott Weinstein(1995). Centering: A Framework for Modeling the Local Coherence of Discourse. **Computational Linguistics** 21, 203-225.
- Kim, Ji-young(1998). Centering Theory and Pronouns in Discourse. Masters's thesis, Sogang University.
- Kim, Mi-kyung(2003). A Centering Dynamics Approach to Zero Pronouns in Korean. **Discourse and Cognition** 10.3, 57-73.

Prince, E.F.(1981). Toward a Taxonomy of Given/New Information.  
In P.Cole(ed.), Radical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Kwak, Sung-*hee*(2003). Contrastive Analysis of Cohesion Shifts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Discourse and Cognition** 10.1,  
1-26.

# A B S T R A C T

## A Study on Anaphora and Coherence between Korean Text and English Text of EFL Students: Based on Centering Theory

Kim Joo-Hee

English Language Education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ext's coherence and language proficiency on the basis of Centering Theory proposed by Grosz, Joshi and Weinstein(1995). With an aim at accomplishing this purpose, we tried to compare and analyze Korean writing and English writing of EFL students based on types of center transitions.

We first studied the notion of Centering Theory and selected the experiment group that consisted of 35 highschool students. They were asked to make a free composition both in Korean and in English. After finishing each Korean text and English text, the students translated their own texts into English or Korean ones. They were also asked to answer the questions about their English

and Korean scores of the former semester to evaluate their language proficiency.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1. The rate of the center continuation transition in Korean writing showed higher results than English writing. In other words, the result showed language proficiency affects the coherence of a text. The 12% contrast number, however, was so insignificant that we needed to divide the group into two based on their scores and to compare the group data with the data from the whole group. The result was same as before.

2. The rate of the center continuation transition of English writing in the English high-level group was higher than the rate of the whole group or low-level group. Although we divided the group into two based on the English scores, the rate of the continuation transition of the Korean writing in the high-level English group was also higher than the rate of the English low-level group.

We doubted the Korean scores also affected the Korean text. Therefore, we divided the English high-level group into two again based on the Korean scores, and compared them. As a result, the rate of the center continuation transition was lower than before in the case of the Korean low-level group. That is, the result also showed the language proficiency affects the coherence of a text.

3. The rate of the center continuation transition was lower than before after the text was translated. This study showed that if the student wasn't proficient in English, their Korean translation text was

more incoherent. In other words, the result also showed the language proficiency affects the coherence of a text in translation.

4. The centers were more frequently realized in the position of a subject than a object in case of the English or Korean high-level group.

5. The zero forms were realized as a center more frequently in Korean text than English text. This study also reveal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anguage proficiency and frequency of zero forms.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allowed us to learn that the language proficiency affects the coherence of the text.





***FAVORITE MOVIE***

So what is your favorite movie and why do you like it?

Is it the storyline, the characters, or a particular actor that you like?

And what part is particularly special to you?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줄거리, 등장인물, 또는 특정배우 때문입니까? 특히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가장 특별하게 와 닿습니까? ) ,,

3. Write about your favorite movie in Korean.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 한국어로 쓰세요.)

---

---

---

---

---

---

---

---

---

---



♠ 다음은 학생 신상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 )안에 “○”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지는 익명이며,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1. 귀하의 이전 학년 영어성적 평균 점수대는 어떠합니까?
  - (1) 80점 이상 ( )
  - (2) 60점 이상 ~ 80점 미만 ( )
  - (3) 60점 미만 ( )
  
2. 시험점수와 상관없이, 귀하의 영어작문능력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1) 상 ( )
  - (2) 중 ( )
  - (3) 하 ( )
  
3. 귀하의 이전 학년 국어성적 평균 점수대는 어떠합니까?
  - (1) 80점 이상 ( )
  - (2) 60점 이상 ~ 80점 미만 ( )
  - (3) 60점 미만 ( )
  
4. 시험점수와 상관없이, 귀하의 한국어글쓰기능력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1) 상 ( )
  - (2) 중 ( )
  - (3) 하 ( )
  
5. 귀하는 영어로 작문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 (1) 그렇다. ( )
  - (2) 보통이다. ( )
  - (3) 그렇지 않다. ( )
  
6. 만일 그렇다면 영어작문 시 가장 힘든 요소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
  
7. 귀하가 평균적으로 영어로 글을 쓰는 빈도는 어떠합니까?
  - (1) 일주일에 1회 이상 ( )
  - (2) 한 달에 1회 이상 ( )
  - (3) 한 학기당(6개월 정도) 1회 이상 ( )

## 부 록 II

### ♠ 상위 그룹 학생 작문 예시

#### 1. 영어 작문 예시

**BEST FRIEND**

Everyone has friends during their lives,  
people who we meet and work and bond with.  
Who would you say is your best friend, or perhaps you have several good  
friends?  
And what do you think makes a true friend?  
(누구나 사는 동안에 같이 만나고 일하며 사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가 당신  
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아마도 여러 명의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또한 무엇이 진정한 친구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

1. Write about who is your best friend and what a best friend means to you  
in English. (당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는 누구이며, 당신에게 최고의 친구란 무슨  
의미인지 영어로 쓰세요.)

My best friend is PSH.  
We always happy when we met. (s/s)  
A best friend is like a family. (s/s)  
When I felt happy, she felt happy together. (s/s)  
and I felt sad, she felt sad together. (s/s)  
we are help<sup>ful</sup> for each other. (s/s)

- 2 -

## 2. 영한 번역 예시

2. Translate the text above into Korean.  
(영어로 쓴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세요.)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는 P.S.H.이다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항상 기쁘다 (5/5)

가장 소중한 친구는 가족과 같다. (5/5)

내가 행복을 느낄 때, 그녀도 행복을 느껴 (5/5)

내가 슬픔을 느낄 때, 그녀도 슬픔을 느낀다 (1)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5/5)

- 3 -



#### 4. 한영 번역 예시

4. Translate the text above into English.  
(한국어로 쓴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세요.)

My favorite movie is 고지전. It is very <sup>(continue)</sup> interesting. And It is one of well-made movies in Hollywood at article. Besides <sup>(continue)</sup> 고지전 is first movie that makes my tears and ~~is~~ me scary. (continue).

## 5. 설문 예시

◆ 다음은 학생 신상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 )안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지는 익명이며,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1. 귀하의 이전 학년 영어성적 평균 점수대는 어떠합니까?  
 (1) 80점 이상 (  )  
 (2) 60점 이상 ~ 80점 미만 (  )  
 (3) 60점 미만 (  )
2. 시험점수와 상관없이, 귀하의 영어작문능력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상 (  )  
 (2) 중 (  )  
 (3) 하 (  )
3. 귀하의 이전 학년 국어성적 평균 점수대는 어떠합니까?  
 (1) 80점 이상 (  )  
 (2) 60점 이상 ~ 80점 미만 (  )  
 (3) 60점 미만 (  )
4. 시험점수와 상관없이, 귀하의 한국어글쓰기능력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상 (  )  
 (2) 중 (  )  
 (3) 하 (  )
5. 귀하는 영어로 작문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1) 그렇다. (  )  
 (2) 보통이다. (  )  
 (3) 그렇지 않다. (  )
6. 만약 그렇다면 영어작문 시 가장 힘든 요소는 무엇입니까? (주관적)  
 답장: 시간이 부족한 것들을 쓰기 힘들다
7. 귀하가 평균적으로 영어로 글을 쓰는 빈도는 어떠합니까?  
 (1) 일주일에 1회 이상 (  )  
 (2) 한 달에 1회 이상 (  )  
 (3) 한 학기당(6개월 정도) 1회 이상 (  )



2. 영한 번역 예시

2. Translate the text above into Korean.  
(영어로 쓴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서모를 도와주고 나를 좋아  
하는 친구야

난 나를 돕기하는 것은 싫어한다. (s/s)

진정한 친구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  
한 친구이다. (s/s)

### 3. 한국어 작문 예시

#### FAVORITE MOVIE

So what is your favorite movie and why do you like it?

Is it the storyline, the characters, or a particular actor that you like?

And what part is particularly special to you?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줄거리, 등장인물, 또는 특정 배우 때문입니까? 특히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가장 특별하게 와 닿습니까?)

3. Write about your favorite movie in Korean.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 한국어로 쓰세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피터팬입니다.  
이름은 산나고, 재미있고, 작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continue) - zero.  
진 피터팬이라는 영화가 왜냐가 이해가 안 됩니다. (s/s)  
아름은 피터팬이란 안살고 어른이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s/s) - zero  
300%

4. 한영 번역 예시

4. Translate the text above into English.  
(한국어로 쓴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세요.)

My favorite movie is 'Peter Pan'

Because it is fun, exciting and looks free.

I cannot understand wendy. (s/s)

Because she doesn't live with Peter pan and she wants to be a adult.

## 5. 설문 예시

◆ 다음은 학생 신상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 )안에 "o"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지는 익명이며,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귀하의 이권 학년 영어성적 평균 점수대는 어떠합니까?  
 (1) 80점 이상 ( )  
 (2) 60점 이상 ~ 80점 미만 (  )  
 (3) 60점 미만 ( )
- 시험점수와 상관없이, 귀하의 영어작문능력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상 ( )  
 (2) 중 ( )  
 (3) 하 (  )
- 귀하의 이권 학년 국어성적 평균 점수대는 어떠합니까?  
 (1) 80점 이상 (  )  
 (2) 60점 이상 ~ 80점 미만 ( )  
 (3) 60점 미만 ( )
- 시험점수와 상관없이, 귀하의 한국어글쓰기능력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상 ( )  
 (2) 중 (  )  
 (3) 하 ( )
- 귀하는 영어로 작문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십니까?  
 (1) 그렇다. (  )  
 (2) 보통이다. ( )  
 (3) 그렇지 않다. ( )
- 만일 그렇다면 영어작문 시 가장 힘든 요소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문법  어휘  
 \_\_\_\_\_
- 귀하가 평균적으로 영어로 글을 쓰는 빈도는 어떠합니까?  
 (1) 일주일에 1회 이상 ( )  
 (2) 한 달에 1회 이상 ( )  
 (3) 한 학기당(6개월 정도) 1회 이상 (  )

- 6 -

♠ 하위 그룹 학생 작문 예시

1. 영어 작문 예시

**BEST FRIEND**

Everyone has friends during their lives, people who we meet and work and bond with.

Who would you say is your best friend, or perhaps you have several good friends?

And what do you think makes a true friend?

(누구나 사는 동안에 같이 만나고 일하며 사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가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아마도 여러 명의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또한 무엇이 진정한 친구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

1. Write about who is your best friend and what a best friend means to you in English. (당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는 누구이며, 당신에게 최고의 친구란 무슨 의미인지 영어로 쓰세요.)

My best friend is middle school friends.

Best friend means is each other help and following, ( ~~continuous~~ )

S/S

- 2 -



### 3. 한국어 작문 예시

**FAVORITE MOVIE**

So what is your favorite movie and why do you like it?  
 Is it the storyline, the characters, or a particular actor that you like?  
 And what part is particularly special to you?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줄거리, 등장인물, 또는 특정 배우 때문입니까? 특히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가장 특별하게 와 닿습니까?)

.....

3. Write about your favorite movie in Korean.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 한국어로 쓰세요)

후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드림볼츠'이다. 이 영화는 (continue)  
 기이한 걸보다 훨씬 재미 있었다.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봐도  
 좋은 영화다. (1) 한국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수있었고, (2/3) -2000  
 여러 교훈이 담겨져 있었다. 꿈을 심어주는 영화인것 같다. (continue) -2000  
 (4/5) -2000

1. 2000년 2월 10일  
 2. 2000년 2월 10일  
 3. 2000년 2월 10일

#### 4. 한영 번역 예시

4. Translate the text above into English.  
(한국어로 쓴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세요.)

My favorite movie is "dream girls". It is  
very funny (unfunny) friends ~~and family~~ and family  
together see ~~inside~~ good movies (9/5)  
It movie is a dream. (9/5)  
that

## 5. 설문 예시

◆ 다음은 학생 신상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 )안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지는 익명이며, 절대 의무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귀하의 이전 학년 영어성적 평균 점수대는 어떠합니까?  
 (1) 80점 이상 ( )  
 (2) 60점 이상 ~ 80점 미만 ( )  
 (3) 60점 미만 (  )
- 시험점수와 상관없이, 귀하의 영어작문능력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상 ( )  
 (2) 중 ( )  
 (3) 하 (  )
- 귀하의 이전 학년 국어성적 평균 점수대는 어떠합니까?  
 (1) 80점 이상 ( )  
 (2) 60점 이상 - 80점 미만 (  )  
 (3) 60점 미만 ( )
- 시험점수와 상관없이, 귀하의 한국어글쓰기능력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상 ( )  
 (2) 중 (  )  
 (3) 하 ( )
- 귀하는 영어로 작문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1) 그렇다. (  )  
 (2) 보통이다. ( )  
 (3) 그렇지 않다. ( )
- 만일 그렇다면 영어작문 시 가장 힘든 요소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그외의 경우, 문법 이해, 문법, 쓰기, 문법능력...
- 귀하가 평균적으로 영어로 글을 쓰는 빈도는 어떠합니까?  
 (1) 일주일에 1회 이상 ( )  
 (2) 한 달에 1회 이상 (  )  
 (3) 한 학기당(6개월 정도) 1회 이상 ( )

- 6 -